유년 시절이 그리운 사람들에 건네는 소박한 위로



막내의 뜰

강맑실 지음

편집자는 다른 사람의 책을 만드는 일을 한다. 제 목부터 구성, 디자인 등 전반적인 책 제작에 관여한 다. 책이 지니는 물성을 비롯해 콘텐츠에 대한 부분 등 전반을 좋아해야 할 수 있는 일이 편집이다.

강맑실은 1980년대부터 40년 가까이 책을 만들어온 편집자이자 사계절출판사 대표다. 그동안 다양한 독자층을 위해 좋은 책을 출판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다. 30년 전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후이제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은 '반갑다 논리야', '논리야 놀자', '고맙다, 논리야' 세권의 시리즈 제목이 그의 아이디어다. 또한 '한국생활사박물관', '아틀라스' 시리즈와 같이 오랜공력 끝에 완성한 프로젝트로 반향을 일으키기도했다.

.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에 관한 책을 쓰지 못했다 다른 저자들을 위해 자신의 아이디어와 영감을 샘에서 물을 기르듯 퍼내다 보니 어쩌면 내면에는 '나를 위한, 나만의 책'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도 고여 있었 을 것 같다.

이번에 강맑실 대표가 직접 쓰고 그린 책 '막내의 뜰'이 주목을 끄는 이유다. 출판인 이전 한 사람의 작가로, 그가 바 라보고 생각하는 세상과 삶은 어떤 빛깔

일까. 무엇보다 책은 유년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에 게 건네는 소박한 위로를 담고 있다.

저자는 어린 시절과 그 시절 살았던 집을 모티브로 이야기를 한다. 글도 글이지만 무엇보다 책속의 그림들이 눈길을 끈다. 학창 시절부터 그림과는 담을 쌓고 살아오다가 2년 전부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중간중간 수록된 수채화는 잔잔하면서도 맑은 여운을 준다.

어린 시절 살았던 집과 뜰, 마을 풍경,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그 시절 누구나 겪었음직한 내용들로 미소를 짓게 한다. 특히 동화라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더더욱 정감이 간다.

강미선 이화여대 건축학부 교수는 추천글에서 "'우리들이 태어난 집은 단순한 집채 이상이고 꿈의 집적체'라는 가스통 바슐라르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유년의 기억을 생생하게 만드는 그집들은 지금의 막내를 만들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직접 그린 집의 도면들은 물리적 공간만이 아닌 그 시절의 가족들, 추억, 감정, 심지어 냄새까지도 담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책 제목 '막내'라는 어휘가 말해주듯 저자는 일곱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 여섯 명의 언니와 오빠들 사이에서 유년을 보냈다. 책은 다시금 '막내'의 유년으로 돌아온 저자가 당시 보았던 풍경과 일화들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막내로 태어날 때부터 커가며 살았던 일곱 채의 집 구조와 추억은 언니와 오빠들의 도움을 받았다. 일곱 채 집의 평면도가 그렇게 탄생했다.

아버지가 학교를 옮길 때마다 가족은 이사를 다녔다. 학교 관사, 적산가옥, 한옥 등이 기억 속에서



복원되었다. 막내는 아버지의 전근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이 녹록하지 않았다. 외톨이처럼 보내기도했고 또래 친구들 무리에 끼지 못하고 외로웠던 시간도 있었다.

대가족의 막내로 귀염을 받았지만, 여러 형제들 틈에서 관계도 배웠다. 사람살이의 지혜와 사랑, 공 감, 소통과 같은 덕목들의 소중함도 깨달았다. 그러 므로 '막내의 뜰'에서 '뜰'은 삶이 집약된 상징적 공 간이면서 유년의 시절을 모두 그러안고 있는 장소 이기도 하다.

동화를 읽다 보면 '집은 최초의 세계다. 그것은 정녕 하나의 우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의 '부동산', '투자'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 온다. 집 구석구석에서부터 마루와 대문, 흙길, 동 산 모든 풍경이 그 자체로 그리움의 대상인 것이

저자는 말한다. "경쟁 사회의 톱니바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 나만의 낙천과 여유의 근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 혹시 다 기억해내지 못하는 저 유년의 끝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건 아닐까. 일상과 놀이의 구별이 없던, 자연을 실용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뛰놀던 유년에서 말이다." 〈사계절·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두의 친절

이나리 지음

2014년 단편 '오른쪽'으로 문학동네신인상을 수상한 이나리 작가에게는 다음과 같은 평이 따랐다. "자신만의 목소리가 뚜렷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독특한 시선과 화법으로 풀어 낼 수 있는 작가", "서늘하면서 깔끔한 단편소설의 맛을 잘 아는 작가". 특히 등단작 '오른쪽'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엄마의 시점에서 서사가 진행된다. 교육과 모성을 둘러싼 첨예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기존의 윤리를 강화하는 것보다 그것을 무참히 허물어버림으로써 날성 충격을 서사했다

허물어버림으로써 낯선 충격을 선사했다. 이번에 이 작가의 첫 소설집 '모두의 친절'은 문제적 개인을 통해 익숙한 삶에 대해 질문한다. 특히 여덟 편의 단편은 도덕규범에 비춰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는 인물'을 제시하는데, 대개 여성일 경우가 많다. 이들은 독자들이 작품 속 인물에게 기대하는 바를 보기좋게 배반하며 다른 방향으로 안내한다.

소설집 문을 여는 '완벽한 농담'은 성적인 호기심을 갖게 된 여자 중학생을 화자로 내세운다. 친구 '미루'가 '나'를 문구용품점으로 이끌며 도둑질을 하자고 하자, '나' 는 잠깐 고민을 한다. 그러나 이내 립글로스를 움켜쥐고 문구용품점을 빠져나온다. 소설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새로이 인식하게 된 여자아이의 성장기로 읽힌다.

표제작 '모두의 친절' 또한 두 여성이 맞부딪치는 순간을 그려내며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옆집 여자가 '나'에게 아이를 맡겨오면서 사건이 전개된다. 소설은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감정에 대해 작가 특유의 시각으로 긴장감있게 풀어낸다. 〈문학동네·1만3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략가, 잡초

보통 잡초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린다. 뽑아도 끊임 없이 자라는데다 인간을 괴롭히는 골칫거리로 본다. 그러나 잡 초는 '타고난 연약함'을 '전략적 강함'으로 극복한 아주 영리한 식물이다. 그렇다면 잡초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일까. 척박한 땅 에서 싹을 틔우기 위해 다양한 생존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환경이 좋다고 무작정 싹을 틔우는 게 아니라 주도면

밀하게 최적의 때를 기다린다.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인 일본의 이나가키 히데히로의 책 '전략가, 잡초'는 잡초의 변화무쌍한 생존 전략을 담았다.

사실 잡초는 밭이나 공원 등 인간이 만들어낸 장소에서 자란다. 이런 곳은 자연계에는 없는 특수한 환경으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잡초는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고 특수한 진화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아무 식물이나 잡초가 될 수 없음을 전제한다.

이나가키 히데히로 지음·김소영 옮김

잡초

마운드 아쉬움 뒤로하고 또 다른 야구 인생 걷는 박지훈

잡초의 일반적인 전략은 흙이 많지 않은 척박한 땅, 다시 말해 식물들이 자라지 않는 곳을 선택한다는 데 있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숲은 경쟁이 약한 잡초가 생존하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다. 사람들은 누가 돌봐주지도 않는데 주변에 널린 잡초를 보면 기르기 쉬운 식물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잡초는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줘도 싹이 트지 않는다. 쉬고 잠자는 '휴면'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 이는 단순한 쉼이 아니라 최적의 발아시기를 찾고 준비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밖에 잡초는 식물이 없는 곳에서 다른 식물보다 먼저 자라는 '선구식물'의 면모를 보이며 씨앗마다 개성을 갖고 있어서 한꺼번에 멸종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설명한다. 〈더숲·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김제동 외 지음

순간

250000

코로나 이후 완전히 달라질 세상, 이미 많이 달라진 세상을 살 아가야 할 우리에게 안부를 묻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삶의 무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은 정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두를 위한 삶의 안내서다. "과연 우리 다시 괜찮아질 수 있을 까?"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했던 질문들, 김제동 이 묻고 각 분야 전문가 7인이 답한다. 전문가로는 물리학자 김 상욱 교수, 건축가 유현준 교수, 천문학자 심채경 박사, 경제전

문가 이원재 대표,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대중문화평론가 김창남 교수가 함께했다. 이들은 양자 세계와 인간 세계, 부동산 정책과 건축, 달탐사 프로젝트, 기본소득과 일자리, 뇌과학과 인공지능, 핵과 기후위기 그리고 인류의 미래,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의 힘과 다양성까지 다채로운 주제들을 다룬다.

전문가들은 난관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문제를 해결할 지식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그리고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한다. 또, 질문과의심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야말로 답을 찾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가수 이효리는 추천사에서 "이 책은 목마를 때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컵처럼 때론 과학적으로, 때론 인간적으로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었다. 나처럼 과학 무식자지만 호기심 많고 잘 살고 싶은 여러분께 추천한다"고 전했다. 〈나무의마음·2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예향 초대석







